

국민가수 남진 고흥에 '등지'



21일 고흥군 영남면에서 열린 국민가수 '남진 트로트기념관' 개관식에서 가수 남진·김여송 광주일보 회장·공영민 고흥군수 등 참석자들이 개막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60년 음악 여정 담은 '남진 트로트기념관' 고흥군 영남면에 문 열어

60여 년 간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국민가수 남진의 이름을 내건 '남진 트로트 기념관' (기념관)이 고흥군 영남면(우천리 145-11)에 '등지'를 틀었다. <관련기사 16면>
가수 이름을 딴 '트로트 기념관'으로는 전국 첫 사례로, 그동안 노래를 통해 호남 문화예술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알렸던 남진의 가수 인생과 발자취를 기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

2400여평 부지에 2층 규모 사신·의상·트로피 등 전시 70년대 추억의 향수로 가득 '내 사랑 고흥' 음반도 발매

고흥군은 21일 오후 가수 남진의 이름을 딴 남진 트로트 기념관을 건립하고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을 비롯해 공영민 고흥군수와 군민, 선후배 동료가수, 딸린트, 팬 등 300명이 참석했다.
기념관은 2019년 남진이 매입한 고흥 앞바다 일대 8000여㎡(약 2400평) 부지에 2층 규모로 건립됐다. 1층은 공연사진 아카이빙을 비롯해 무대 의상, 레코드판, 트로피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2층은 스튜디오로 조성했다.
남진은 노래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호남의 대표 문화예술인이다. 지난 1965년 데뷔한 이래 그는 '님과 함께', '등지', '빈잔'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

표했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 '소외와 설움의 땅'이었던 호남은 정치 분야에 'DJ' (김대중 전 대통령)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면, 대중 문화예술계에서는 가수 남진이 지역민들에게 위로와 자부심이었다.
그는 최고 인기 절정의 시기 해병대에 입대해, 베트남 파병을 자원하기도 했다. 제대 직후 나훈아와의 라이벌 구도로 조명을 받았다. 또한 자신의 곡 이름을 딴 다수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국내 최초 팬클럽을 탄생시키는 등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다.
그는 "20대 데뷔했을 당시 고흥 시장터, 극장 등에서 공연했던 기억이 어제일처럼 생생하다"며 "그 시절 먹었던 고흥의 생선을 비롯해 맛갈스러운 음식, 아름다운 자연 풍광은 여전히 뇌리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당시 공연을 하면서 고흥군과 인연이 닿았고, 오늘의 기념관 건립에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밖에 남진은 2017년부터 고흥군 명예 홍보대사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2018년 '내 사랑 고흥'을 발매하는 등 고흥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보여 왔다.
한편 이번 기념관은 고흥에 건립됐지만, 남진의 고향 목포시에서도 생가를 중심으로 '남진출생기념관' 건립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남진 트로트 기념관' 개관식 국민가수 남진 소감·인터뷰

YouTube 광주일보

광주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72기 수습기자 및 경력기자 모집

창사 71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열정과 패기, 특독 뒀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광주일보는 그동안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발굴, 보도하면서 독자와 지역민의 대변자를 자임해왔습니다.
신문과 인터넷·모바일이 어우러진 융합미디어를 지향하는 광주일보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호남언론 증가에서 100년 신문의 역사를 열어가길 장의적인 사고와 정열, 지혜와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대상	전형절차	자격
수습기자 0명 경력기자 0명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전형일정	일정 및 장소
지원서 접수	11월 21일(화)~12월 4일(월) 방문 및 우편 메일(chongmu@kwangju.co.kr) 접수
서류전형 발표	12월 6일(수) 개별통보
심층면접	12월 11일(월) 본사 10층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12일(화) 지면 및 개별통보

제출서류	제출처
입사지원서 1부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1부	A4 용지 1장 이내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졸업증명서 포함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수습기자 응시자 제출서류와 같음	개인정보 비밀 보장
본인 작성 기사 사본 5건	

▶접수처: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E제일은행빌딩 10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국

대학들, 2025년 의대정원 2배 증원 희망

정부 수요조사, 연말 증원폭 결정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학들이 당장 내년에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지금의 2배 가까이 늘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달 27일-지난 9일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한 대학들의 증원 희망 폭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3058명 인 현재 정원 대비 70.3~93.1% 늘리지는 것이 아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해수·해조류·머드 등 16개 치유 테라피실 갖춘 해양치유센터

국내 최초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

2023. 11. 24.(금) 전남 완도군 명사십리61번길 94